

# “우리는 광주 문화 전령사”

■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대학생 기자 3명

광주대 사진영상학과 4학년인 김지애양은 ‘명함’을 내밀기가 조금 쑥스럽지만 어엿한 ‘기자’로 활동중이다. 지난 7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운영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대학생 명예기자’로 뛰고 있는 김 씨는 자신이 찍은 사진이 신문에 실리는 행복감도 맛봤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대규모 프로젝트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게 사실이다. 특히 타 지역 사람들은 왜 광주가 문화 중심도시인지 고개를 갓다하기도 한다.

“전국에 문화수도 전파자 역할 뿐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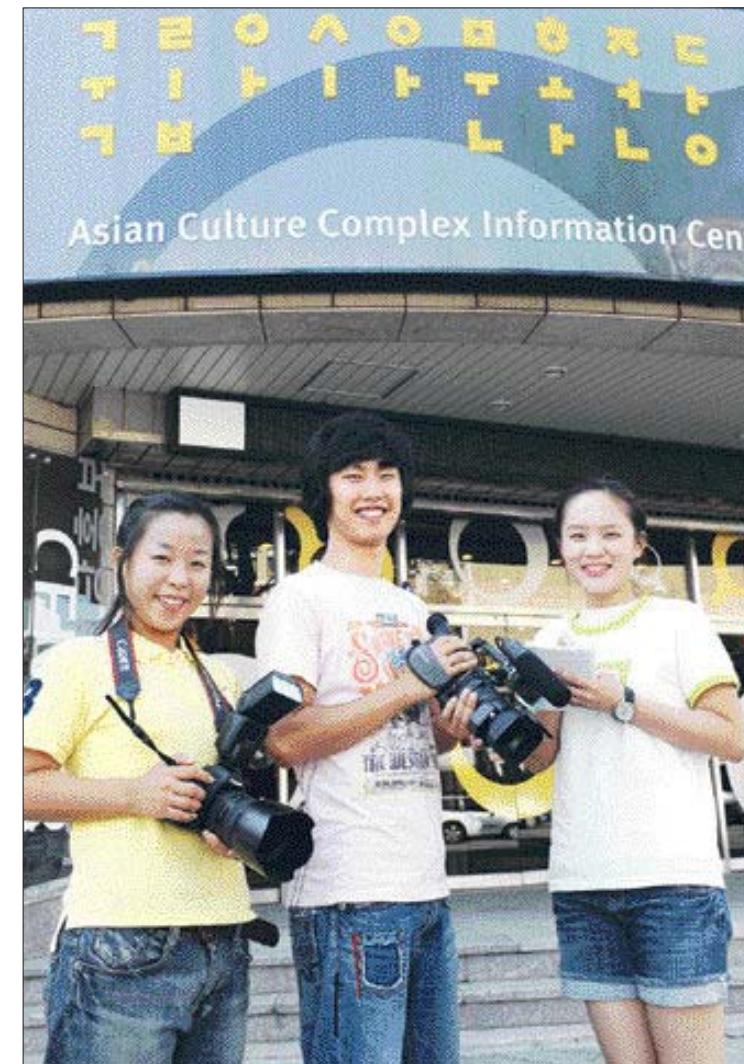
“비엔날레 오쿠이 감독 인터뷰 목표”

추진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소개하고, 특히 광주의 문화 역량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서울과 광주 지역에서 6명의 대학생을 선발, 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는 김지애(22·광주대 사진영상학과·사진 담당), 나혜미(21·전남대 영문학과·취재 담당), 흥기(24·전남 과학대 방송영상과·영상 담당)씨 등 3명.

김 씨 등이 취재한 기사는 추진단이 발행하는 ‘웹진 문화 아시아’(www.cct.go.kr/webzine)와 블로그(blog.naver.com.s6604), 카페(cafe.daum.net/giasia)에 소개되고, 보도·홍보 소재로 활용중이다.

“저 역시 기자가 되기 전에는 문화중심도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



광주의 문화 전령사로 활동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명예기자 김지애·흥기·나혜미씨(사진 왼쪽부터)

/위직장기자 jrw@kwangju.co.kr

부인의 눈으로 광주의 문화를 바라 볼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처음에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어떤 특색이 있을까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조금씩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시화 마을이랑, 공방의 거리 등 도심 곳곳에 숨겨진 공간들이 많던데요.”

앞으로 광주의 문화풍경과 함께 학평 나비축제의 성공 과정 등을 카메라에 담고 싶다는 흥기는 “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故 박경리, 소설가 등단 전 발표 詩 발견

장시 ‘바다와 하늘’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박경리(사진) 선생이 소설가로 정식 등단하기 전에 발표했던 시가 최근 발견됐다.

2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박씨의 시 ‘바다와 하늘’이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국상업은행의 사보 ‘천일’(天



을 응산지점에 균 무할 당시 쓴 것으로 보이는 이 시는 최근 우리은행이 박씨의 딸인 김영 주 토지문화관장으로부터 박씨의 작품이 상업은행 사보에 남아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은행 본점의 은행사박물관에 보관돼 있던 자료들을 검색하던 중 발견됐다.

바다와 하늘

“바다는 용대한 장군의 긍지를 가졌다 / 같은 살육이 김행되는 진영 위에서 / 장검을 고이고 육지를 비 예한다/ 바다는 서러운 이 야길랑/ 하-롭 여실의 한 숨이거니 생각는다...”

“세계 미술의 중심 韓·中·日로 이동

지역 작가들 국제 감각·인맥 갖춰야”

■ 상하이 ‘분드18’ 디렉터 김선희씨

“세계 미술계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 작가들도 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 감각과 네트워크를 갖춰야 합니다.”

광주 출신으로 현재 상하이 비영리 미술전시공간인 ‘분드18’의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희(49)씨가 제7회 한국국제아트페어(19일~23일) 참관을 위해 지난 20일 서울을 찾았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과 일본 모리미술관 큐레이터 등을 역임했던 그녀는 한국, 일본, 중국을 무대로 활동을 펴고 있다. 지역 출신으로는 드물게 국제무대를 누비고 있는 김씨는 특히 동아시아 미술의 흐름을 정확히 짚고 있는 전문가다.

김씨는 “이번 한국국제아트페어에 참여한 광주지역 작가들의 독창적인 작품을 보고 놀랐다”면서도 “하지만 미술시장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데 국제적인 감각이 다소 떨어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광주·전남이 예술적인 전통을 바탕으로 능력있는 젊은 작가들을 많이 배출하고는 있지만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작가들 스스로 미술 동향 등을 잘 빠르게 받아들이는 등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는 지역 작가들이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는 “근래 미술품 수집가들의 취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트페어가 미술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상하이는 최고의 아트페어인 바젤 아트페어 운영진을 섭외해 상하이컨템포라리를 기획하고 있을 정도”라며 한국 작가와 미술애호가들도 아트페어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미술사를 수료했으며, 1997년 광주비엔날레 전시 1팀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동화적인 분위기로 연출한 ‘생명의 동경’

서양화가 김해성씨

옥과미술관 초대전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밝은 색채로 표현하고 있는 서양화가 김해성씨가 오는 11월20일까지 도립전남옥과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피리 불고, 노래를 부르는 여인들의 모습을 담은 ‘숲의 친구들’ 연작과 ‘봄 바람’ 등 신작을 발표한다. 강한 블루톤과 노란색을 사용해 등장인물의 생동감을 강조한 작품들이다. 또 ‘빛의 화원’ 등의 작품을 통해 생명에 대한 동경을 동화적인 분위기로 연출했다.

김씨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과 동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선과 색’, ‘그림 새벽’, ‘한국 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객원교수, 고양시미술대전 운동위원 및 상임위원을 지냈다.

/서울=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금남공원 광장 음악회 ▶ 26일 오후 7시 30분

광주 금남공원(옛 한국은행 자리)에서 열리는 광장을악회가 26일 오후 7시 30분 9월 공연을 갖는다.

통기타 그룹 기차여행의 오프닝 공연으로 막을 여는 이번 무대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유명 오페라 아리아로

꾸며진다.

연주 레퍼토리는 오페라 ‘팔리아치’ 중 ‘여러분 잠깐만’, ‘카르멘’ 중 ‘깊시의 노래’,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 맘 열리고’, ‘라보임’ 중 ‘무젯타의 왈츠’, ‘돈 조반니’ 중 ‘그대

의 손을 주오’,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등이다.

출연자는 바리톤 정찬경, 소프라노 김은선·신은경, 테너 김백호, 피아니스트 박지현씨 등이다. 인터넷 다음 카페(http://cafe.daum.net/piazza 21)에서 이날 공연될 오페라 아리아를 미리 들어볼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푸른호수, 푸른숲 속 전원주택단지 선착순 본격분양 개시**

자연 IN+ 푸른호수 푸른숲 속 전원주택단지 선착순 본격분양 개시

전화: 02-553-8570

**광주·전남 기능장 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가발초슬립!!

타사 제품 보상판매

SOS-KBC 사람세상 발행

귀하의 헤어업 면개를 놓여주는  
대한민국 브랜드가발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화: 02-553-8570, 02-553-8570